

‘골골’ 대던 손흥민 총전 끝나니 ‘골~골~’

AG·대표팀 경기로 피로 누적
10경기만에 시즌 1·2호 골
토트넘, 카라바오컵 8강 진출



손흥민(26·토트넘)이 2018-2019시즌 10경기만에 ‘멀티 골’로 득점 침묵을 깼다. 손흥민은 1일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18-2019 카라바오컵(리그컵) 4라운드(16강) 원정 경기에서 전반 16분 선제골과 후반 9분 결승 골을 연이어 터뜨렸다. 이번 시즌 각종 대회를 통틀어 10경기 만에 나온 손흥민의 1, 2호 골이다. 앞서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5경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경기, 카라바오컵 1경기에 나섰으나 골 맛을 보지 못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A대표팀 경기 등을 소화하느라 피로가 누적됐던 그는 10월 A매치 이후 경기 출전을 조절하면서 피로를 조금씩 덜어냈고, 마침내 멀티 골로 포문을 열어 본격적인 골 사냥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150번째 경기에 나선 손흥민의 맹활약 속에 팀은 3-1로 승리에 리그 컵 8강에 진출했다. 토트넘은 16강전 이후 진행된 대진 추첨에 따라 아스널과 준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토트넘은 선발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페르난도 요렌테를 내세우고, 2선에 손흥민, 크리스티안 에릭센, 델리 알리를 배치했다. 경기 초반엔 프리미어리그 순위로는 아래인 웨스트햄의 만만치 않은 공세에 맞섰다. 하지만 전반 16분 손흥민의 한 방으로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다. 손흥민은 알리가 뒤로 내준 패스를 페널티 지역 안으로 파고들며 강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첫 골을 기록했다. 후반 9분엔 단독 드리블로 골대 앞까지 간 뒤 골키퍼와 수비수가 모두 막아선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왼발 슈팅을 꽂아 기세를 올렸다. 웨스트햄은 후반 26분 루카스 페레스의 헤딩골로 반격했으나 토트넘은 4분 만에 요렌테의 추가 득점이 나오며 승기를 잡았다. 지난달 30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리그 경기에 출

“나 좀 멋진 듯” 토트넘 홉스퍼의 손흥민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18-2019 카라바오컵(리그컵) 4라운드(16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이자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은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이번 시즌 각종 대회를 통틀어 10경기 만에 1, 2호 골을 터뜨리며 득점 침묵을 깼다. 토트넘은 3-1로 승리에 리그 컵 8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전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던 손흥민은 이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쉽지가 않고 나중엔 누비며 승리를 주도했다. 멀티골에 성공한 손흥민은 “가장 중요한 건 우

리가 승리에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는 거다. 그리고 내가 골을 넣었다는 것”이라며 “골이 나오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팀에 무척 미안했다”면서 “드디어 다시 골을 터뜨렸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팀을 오래 떠나 있어서 미안했는데, 이렇게 골을 넣고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팀원과 코치진,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골을 통해 자신감이 살아났다”고 자평한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원정(8강전)도 잘 치러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세계 1위 탈환 나달, 파리 마스터스 출전 포기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롤렉스 파리 마스터스(총상금 487만2105 유로) 출전을 포기하면서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새로운 세계 1위 자리의 주인공이 됐다. 나달은 지난달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번 대회 단식 2회전에서 페르난도 베르다스코(27위·스페인)를 상대할 예정이었다. 톱 시드를 받아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나달은 그러나 경기 시작에 앞서 기권을 선언했다. 나달은 “아직 서브를 넣을 때 근육에 불편함을 느낀다”며 “의사가 출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출전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2회전에서 주앙 소자(48위·포르투갈)를 2-0(7-5 6-1)으로 제압하고 16강에 진출한 조코비치가 5일차 순위에서 세계 1위에 오르게 됐다. 조코비치가 세계 1위가 되는 것은 2016년 11월 이후 2년 만이다. 조코비치는 팔꿈치 부상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 워싱턴 이후로 코트에 나서지 못하다가 올해 1월 호주오픈을 통해 복귀했다. 그러나 호주오픈 16강에서 정형(26위·한국체대)에게 져 탈락했고 이후 팔꿈치 수술을 받는 등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냈다. 약 2개월 공백기를 가진 후 3월부터 대회 출전을 재개한 조코비치는 워싱턴과 US오픈을 차례로 제패하며 전성기의 기량을 회복했다. 조코비치는 올해 5월 세계 랭킹 22위까지 떨어졌다가 결국 이번 시즌을 1위로 마치고 됐다. 한 시즌에 세계 랭킹 20위 밖에 있다가 1위까지 오른 것은 2000년 마라트 사핀(러시아) 이후 올해 조코비치가 18년 만이다. /연합뉴스

광주 FC ‘진인사대천명’

내일 K리그2 35R 부산 원정
4강 실낱 희망 걸고 총력전
무조건 이기고 대전 승패 지켜보야

광주 FC가 4강 꿈을 안고 부산으로 간다. 광주는 4일 오후 2시 구덕운동장에서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2018 K리그2 3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앞선 33라운드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오심’에 올랐던 광주는 지난 34라운드 FC 안양과의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꺼져가던 4강 불씨를 살렸다. 광주는 이번 부산 원정에서 승리한 뒤 안산 그리너스와 최종전까지 모두 이겨야 4위를 노려볼 수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조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4위 대전 시티즌이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패하거나, 1 무만 기록해야 한다. 대전이 광주보다 앞선 3일 부천 FC 1995와 35라

운드 대결에 나서는 만큼 광주의 시선은 두 팀이 맞붙는 대전월드컵경기장에 쏠린다. 광주는 대전의 승패를 생각하기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광주가 이번에 만나야 하는 상대가 만만치 않다. 3위 부산 역시 성남 FC와 2위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승리가 필요하다. 절실함을 가진 두 팀에게는 냉정함과 집중력도 필요하다. 광주는 전력 누수가 있다. 앞선 안양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던 외국인 공격수 펠리페와 미드필더 여봉훈이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특히 높이를 장악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펠리페의 공백이 뼈아프다. 박진섭 감독은 둘의 공백을 전술 변화로 극복할 예정이다.

박 감독은 “둘의 자리는 김민규와 최준혁이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 승리를 위해 빠르고 왕성한 경기력이 필요하다. 전술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선수들과 미팅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올 시즌 부산에 1승 2무를 기록하며 우위를 점했다. 광주는 2015시즌 부산에서의 좋은 기억도 가지고 있다. 광주와 부산은 2015시즌 K리그 1에서 승 막히는 강등 싸움을 벌였던 라이벌이었다. 당시 광주는 부산에서 전개된 맞대결에서 송승민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두고, 잔류를 확정했다. 두 팀은 치열한 경기력으로 박진섭 넘치는 대결을 벌여왔다. 올 시즌 두 팀의 마지막 만남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주치의 이준영 교수 광주 유소년 발전기금 기부

프로축구 광주 FC 주치의 이준영 교수(조선대학교 병원)가 광주 유소년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광주는 1일 구단 사무국에서 기영욱 단장 및 U-18 최수용감독, U-15 박창석 감독, 이준영 주치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FC 유소년 발전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8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주치의로 파견돼 금메달에 일조를 한 이 교수는 금메달 포상금 중 일부를 유소년팀에 기부했다. 이 교수는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 선수들과 함께하면서 광주의 A팀도 중요하지만 유소년들의 성장도 빼놓을 수 없다는 걸 느꼈다. 광주 유소년들이 자신을 믿고, 부상 없이 잘 성장해 기성용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멀티골’ 펠리페 K리그2 34R MVP

멀티골로 광주 FC의 4강 불씨를 살린 펠리페가 34라운드 MVP 영광을 안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31일 K리그 2 34라운드 경기를 평가, 펠리페를 MVP로 선정했다. 광주 공격의 또 다른 축 나상호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펠리페는 지난 10월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안양과의 경기에서 전반 16분 페널티킥에 성공한 뒤, 후반 37분 결승골을 기록했다. 펠리페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둔 광주는 4위 대전(승점 49)과 승점 차를 5점으로 좁히며,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되살렸다. 이날 부지런히 상대 골문을 두드리면서 승리에 기여한 나상호도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

